

탄소산단 입주기업 러쉬, 지역경제 ‘훈풍’

전주시 · 전북자치도 · 전북연구개발특구, 탄소국가산단 입주희망기업 7곳 투자협약 체결

전주시가 위태로운 지역경제를 시급히 지원하기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식 분양을 앞둔 전주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에 7개 기업이 투자하기로 약속하면서 지역경제에 훈풍이 불게 됐다. 특히 전주 탄소국가산단에 입주하기로 약속한 기업은 총 13곳, 투자규모도 1600억 원대로 늘어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강한 경제 전주 구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임문택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 (주)파마로보틱스 등 7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투자유치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투자협약은 지난해 3월 전주 관련 6개 기업과 100여원대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탄소국가산단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과 체결한 두



번째 투자협약으로 △국내 드론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혁신적인 드론을 개발하는 드론기업인 ‘엑세스 위’(대표 이준범) △주사제 자동 조제로봇을 생산하는 바이오기업인 ‘파마로보틱스’(대표 유제형) △태양광 발전장치 제조기업인 ‘넵프’(대표 김태평)와 ‘대경산업’(대표 김경호) 등이 참여했다. 이들 7개 기업은 이날 협약에 따라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인 탄소국가산단에 총 610억 원을 투자하고, 135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에 다양한 첨단 분야의 업종들이 포함돼 있어 전주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입주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옥기 기자

이와 관련 전주 탄소국가산단은 약 66만㎡(20만 평) 규모로 오는 202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활발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월경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전주IC와 가까운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고 인근에 연구·혁신기관이 소재하는 등 입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시는 입주기업에 세제·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탄소국가산단을 ‘탄소융복합 기화발전특구’를 지정을 받았으며, 탄소국가산단 내 인프라의 디지털·친환경화를 위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기도 했다. 이후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입지 강점 이외에도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이 가능한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거듭나며 다양한 업종의 첨단 유망기업들이 활발하게 입주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 달성

전개공, 553개 기관 운영실적 전반 종합평가

전북개발공사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며 총 55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시행했다. 이번 평가는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총 5개 분야 11개 지표에 대해 진행

되었고, 모든 영역에서 전년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아 9.08점이 상승한 99.63점을 획득해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전북개발공사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정보공개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고,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관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최신화된 자료로 관리하는 부분을 높게 평가받았으며,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공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1만호기자



전북축협운영협의회(회장 심재집, 익산군산축협조합장)은 지난 14일 NH첨예우(대표 서민석) 3층 회의실에서 도내 10개 축협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번째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 기업 수도권 진출 핵심 거점 발돋움

용산역 비즈니스 라운지, 18년 개소이후 누적 이용객 2만 3663명 돌파



새만금공사, 제3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공식 출범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 나경균)는 주요 건설사업의 기술심의와 평가를 위해 제3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위촉하고, 위촉식 및 청렴사약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술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위원회로, 총 14개 분야에서 332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새만금개발공사의 다양한 건설사업에서 심의·평가·자문을 맡게 된다. 위촉식에서는 위원들이 청렴선언문을 낭독하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사는 기술평가 참관인 제도와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개설을 통해 투명한 기술 심의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경균 사장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새만금 건설사업을 더욱 경쟁력 있게 추진하며,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01만호 기자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지난 15일 전북특자도와 공동 운영 중인 서울 용산역 전북 비즈니스라운지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전북 지역 기업인들의 수도권 비즈니스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역 4층에 위치한 비즈니스라운지는 전북특자도·광주광역시·전남도 등 3개 지자체와 9개 상공회의소(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광주·여수·광양·목포·순천)가 호남권 지역 기업의 수도권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문을 열었



다. 지난해 용산역 비즈니스라운지 전북권 이용객은 6,174명으로 전년대비 24.0% 증가했으며, 회의실 이용 횟수도 534회로 24.2% 늘어났다. 누적 방문 이용객은 2만 3,663명을 돌파했다. 익산소재 식품기업인 A기업 대표는 “용산역 비즈니스라운지 덕분에 수도권 비즈니스 활동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잘 갖춰진 비즈니스 공간과 쾌적한 시설에서 수도권 기업들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가능해졌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용산역비즈니스라운지는 프리랜레이션 기능을 갖춘 회의실 3곳과 사무·휴게공간, 업무용 PC와 복사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옥기 기자

한전 김제지사, 김제사회복지관에 후원금 100만원 전달

한국전력공사 김제지사(지사장 신진형)는 15일에 지역 저소득 이웃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매월 자발적으로 적립한 후원금 100만원을 김제사회복지관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한전 김제지사는 지역경제 침체와 더불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후원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 설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고자 김제사회복지관을 방문해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김제시 저소득층 주민 약 30여 가구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한전 신진형 지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직원들이 모은 후원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명절 외로움 극복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뜻을 밝혔다. /김옥기 기자

2025년 제1차 전북축협운영협의회 개최

전북축협운영협의회(회장 심재집, 익산군산축협조합장)는 지난 14일 NH첨예우(대표 서민석) 3층 회의실에서 도내 10개 축협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번째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축산 관련 기관장들의 새해맞이 신년인사와 함께 전북농협 축산경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한우 수급동향 등 축산 부문 현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축산농가 실익증대와 전북축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의 한우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 등 25년 주요 신규사업 현황과 축산농가 사료경영안정 지원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희선 전북특별자

치도 축산과장, 이정환 농협 전북본부장, 박진만 농협시료 전북지사장, 정민석 농협시료 군산바이오 공장장, 농협 목우촌 김제육가공 나홍준 공장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 남건 지원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전북지역본부 송규봉 본부장 등이 참석해 새해 맞이 신년 인사와 협의회 개최를 축하했다. 심재집 협의회장은 “겨울철 가축 차단방역을 위해 소독활동 강화 및 농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지도가 필요하다”며, “한우 소비 촉진 적극 추진, 설 명절 축산물사업장 위생 안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농협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이번 운영협의회를 통해 축산 관련 현안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 등 25년 주요 신규사업 현황과 축산농가 사료경영안정 지원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희선 전북특별자

/01만호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